

# 이용섭 “당 혁신·계파정치 종식 시키겠다”

## 민주 5·4전대 첫 당권 출마 선언 탈계파 논의, 호남 정치권 지지 주목 경선 준비 강기정 의원과 단일화 변수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광산 을)이 5·4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서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 입장을 밝혔다. 5·4 전대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이때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저를 불렀다”며 “마냥 큰 바위 얼굴만을 기다리기에 민주당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고 출마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혁신수석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정부 혁신을 주도하겠다”며 민주당의 혁신에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운 뒤, “3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도덕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내 어느 계파에도 속

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계파에 부채가 없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고질적인 계파정치가 막을 내릴 것이며 당내 인사 및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파 정치 청산 방안으로 ▲적색적소 혁신인사 ▲원의 지역위원장 발탁 ▲진입장벽 없는 경선시스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의 5대 혁신 과제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생활정당 ▲실력 있는 정책정당 ▲계파정치 청산 ▲공천 혁명 ▲정권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야당 등을 내놴다.

이 의원의 당 대표 경선 도전 선언으로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됐던 당권 경쟁이 본격 전락될 전망이다. 당권 주자로서 이 의원의 강점은 검증된 전문성과 탈계파 성향이다. 주류, 비주류, 중도 진영으로부터 모두 호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5·4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5·4 전대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회견장에는 20여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즉,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는 주류 및 친노 진영에서 당권 주자를 내지 않으면서 촉망 지원에 나서고 중도 및 일부 비주류 진영의 지지가 이뤄진다면 이 의원의 도전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친노·주류 진영 주자로 꼽혀왔던 김부겸 전 최고위원은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권 구도가 주류와 비주류

의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어 확고한 계파가 없는 이 의원이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비주류 및 중도 성향이 강한 호남 정치권이 과연 이 의원 지지를 할지라도 몰아붙이지는 않을지 지켜볼 점이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당 대표 경선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당권 도

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당 대표 주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가 실시된다”며 “이 의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만나 단일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치판 안철수 변수 민주 전대도 뒤 흔들나

## 서울 노원병 출마 싸고 자강론·연대론 충돌 가능성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통해 정치권 초기 등판을 예고하면서 민주통합당과 새 지도체제를 뺏을 5·4 전당대회까지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전 교수의 등장으로 민주당의 차기 당권 향배는 단순히 민주당 새 판짜기 차원을 넘어선 야권 내 지형 개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안 전 교수의 등장은 민주당 전대 경선 일정 이 승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친(친노무련)·주류 측이 ‘선(당 혁신)에 방점을 둔 ‘자강론’을, 비주류 측은 안 전 교수 및 그 세력과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연대론’을 각각 주장하며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두 갈래 흐름은 노원병 지역에서의 민주당 자체 후보 공천 여부, 대선 평가 과정에서 안 전 교수의 공명적인 여부 등을 놓고 향후 전대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번 민주당 전대

4·24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불과 10일 쯤 열린다는 점에서 안 전 교수의 보선 성적표가 전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 전 교수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존 재감을 극대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연대에 적극적 입장을 취해온 비주류의 입지가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조심스레 제기된다. 또 그동안 안 전 교수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표출해왔기 때문에 친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주축인 호남이 대선 패배 후에도 자성하지 못하는 친노세력에 상당한 실망감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호남의 여론은 안 전 교수에 우호적으로 흐를 수 있고 이는 민주당 비주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 같은 계파별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관심이 안 전 교수에게 집중되면서 민주당 전대 자체가 ‘미이너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식물국회’ ‘식물정부’...하는 게 뭐 있나

## 여야 조직개편안 힘겨루기·차대통령 국정공백 초래 비판 여론

2월 임시국회가 최대 현안인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5일 막을 내렸다.

이날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 정부조직 개편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됐다.

개편안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 이날까지 35일의 시간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공천만 거듭하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범한 지 9일이 지난 이날까지 ‘식물 정부’가 계속되면서 국정 공백의 장기화도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야당은 물론 여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책임을 돌리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 ‘여의도정치 존중’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새 출범을 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정치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은 물론 여당, 나아가 국회의 존재 이유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할 경우 현재와 같은 국정 불안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협상에 재를 뿌린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속한 정부조직개편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박 대통령의 전담 대국민 담화가 역할적으

로 ‘합의’를 향해 달려가던 여야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전날 박 대통령의 담화 때문에 (협상)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다”며 “너무 강수를 뒤서야 당을 궁지에 몰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회 선진화’를 전면에 내걸고 19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법과 제도만 개선했을 뿐 저변의 정치 문화·행태에 있어서는 구태를 반복하며 ‘식물국회’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애초 “정부조직법 개정은 입법부의 권할 것”이라며 여야 협상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갇혀 재량권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사초점’에 출연, “국회에서 여야 간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전날 박 대통령의 담화 때문에 (협상)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다”며 “너무 강수를 뒤서야 당을 궁지에 몰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회 선진화’를 전면에 내걸고 19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법과 제도만 개선했을 뿐 저변의 정치 문화·행태에 있어서는 구태를 반복하며 ‘식물국회’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애초 “정부조직법 개정은 입법부의 권할 것”이라며 여야 협상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갇혀 재량권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대선평가 위 설문 안철수 11일 귀국 89% “이대론 내년 지방선거 참배”

4·24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오는 11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대선 당일인 12월 19일 미국으로 떠난 지 82일만이다. 안 전 교수는 그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류하며 정치 행보를 구상해왔다.

안 전 교수는 10일 낮 12시35분(미국 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11일 오후 5시35분(한국 시각)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24편을 예약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안 전 교수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재보선 출마 배경과 신당 창당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 전 교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그의 노원병 출마와 관련,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를 전국적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서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6일 실시되는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 중간 발표에 당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당시 선대위 팀장들의 증언과 설문조사를 통한 대선 패배 원인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실시되는 대선평가위원회의 중간 평가에는 선대위 관계자들의 증언과 지역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 각종 학술 행사에서 나온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여기에 당내 후보 경선과 모바일 투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와 당내 주요인사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대선 패배 요인들도 밝혀질 예정이다.

대선 평가위원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592명, 지구당 위원장 112명, 당직자 100명, 국회의원 보좌진 226명, 광역의원 및 기타 154명)의 85%가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으나 민주당이 잘못해서 졌다”고 답했다.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들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8.3%, “문재인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21.3%로 나타났다.

“총선 및 대선 패배에도 집단적 무책임이 당 지도부에 퍼져있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 “누군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81.1%로 집계됐다.

안철수 전 교수의 민주당 입당을 환영한다는 답변은 65.7%로 집계됐고 안철수 입당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민주당의 위기 체감 지수가 낮다”(86%),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89.4%), “당의 이익보다 계파의 이익을 챙기는 풍조가 강하다”(85.3%), “친노라는 개념의 실체가 없다”(36.3%) 등의 답변이 제시됐다. /임동욱기자 tuim@

### 봄맞이 무료특강

####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정부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13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재테크 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전남지부장  
- ㈜전남대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총 초청강의

**2. 혼란기시대의 부동산 수익형 토지 성공전략**

강사: 김영표 토지재테크 전문강사  
- ㈜현대토지 입주  
- 강남 펜스타다 재테크 전문강사  
- 연남대 기업계 등 출강

일시: 2013년 3월 8일(금) 주안 14시 / 야간 19시  
좌석 및 당일 혼잡관객로 사전전화 예약(사전예약 70명 마감)  
장소: 광주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연장(광주은행본점5층)  
주최: 롯데백화점  
후원: 참가자 다와옥션 경매이용권(3만원) 무료제공

**광주 롯데백화점 (062) 221-1810~2 문화센터**  
HP: 010-5613-1808

###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 (16기)	광주교육대학교 (7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 월, 목 아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 ~ 3.9.(토)	2013.1.24.(목) ~ 3.9.(토)
수업기간	2013.3.8.(금)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 월·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9-107-307803	₩350,000 (예금주: 광주교대) ·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0-3614-4160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www.j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www.gne.ac.kr

###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 알레르기성 비염

## 축농증·코피 해결

##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산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대한생명

구. 한미소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2-2  
대인시장 한미소평 맞은편

중앙초교

신영초교

신영초교

신영초교

금남로

국자주점

신영초교

신영초교

바로 옆으로 이전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원명: 의료광고선정일 제(062)50-26%호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 진료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2012. 3. 4(월) ~ 2013. 6. 17(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 ~ 17:00  
- 야간반 18:00 ~ 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